농축산물 매출 3조원 시대 연다

농협전남지역본부 '판매 농협' 발대
14개 품목 마케팅 강화 수도권 공략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6일 판매농협 중심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발대식을 갖고 전남 농축산물 판매 3조원 시대를 열 것을 다짐했다.

지난 2일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경제사업 역량을 강화해 올해 농·축산물 판매 3조원 시대를 열어 갈 것을 결의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6일 지역본부 1층 현관 앞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매농협' 중심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사업목표를 전년(2조9232억원)보다 10%가량 늘린 3조2232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남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경제사업부 조직을 기존의 3개 팀에서 경제기획팀·산지육성팀·시장 개척팀·양곡 자재팀·축산 사업팀 등 5개 팀으로 확대했다.

또한 '판매농협' 구현을 위해 전남 대표농산물 14대 품목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추진을 비롯해 ▲연중 산지농협 현장 마케팅활동 상시 지원체제 구축 ▲경제구조개편에 부응한 마케팅 중심 조직강화 ▲공선출하회 성장단계별 등급화 및 등급별 맞춤 지도·지원 등을 추진한다.

매년 반복되는 마늘·배추·양파·대파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 물량을 기존 23만9000t에서 26만3000t으로 확대해 시장조절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수도권 학교급식 시장 선점과 공급 확대를 위해 ▲동부권(순천조합 공동사업법인) ▲중부권(장성 삼계농협 산지유통센터) ▲서남부권(나주조합 공동사업법인) 등 3개 지역을 거점으로 한 학교급식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수도권 학교급식 판촉단'을 통해 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안심축산물 생산 및 취급 판매장과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사업장을 확대하고, 한우고기 인증 및 판매장 위생점검을 강화해 '안심·청정 전남축산물' 판매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책임지고 팔아주는 판매 중심의 전남농협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 지원 사업을 강화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에 사랑받는 조직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황사·눈·비 걱정 뚝 본격적인 황사철을 앞두고 롯데백화점 광주점 6층 유아용품 매장에서 영유아들을 위한 '시력보호용 유모차 커버'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방수방품 직물' 등으로 이뤄져 있어 황사, 미세 먼지 등 유해물질을 비롯해 자외선도 차단해준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와인에 취한 광주의 밤

금수장 관광호텔 '와인&다인' 성료

지역 와인 애호가들이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에서 열린 제 22회 와인&다인 행사에 참여해 만찬을 즐기고 있다. 〈금수장관광호텔 제공〉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지난 2일 '와인&다인' 행사가 열렸다.

지난 2005년 지역 와인애호가들에게 첫 선을 보인 후 22번째를 맞는 '와인&다인'은 한식과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만찬행사로 금수장 호텔과 와인수입사인 (주)WS통상이 공동기획했다.

이번 '와인&다인'에서는 '와인의 신'으로 불리는 로버트 파커(Robert Parker)에 의해 100점 만점을 받는 등 깊고 풍부한 맛으로 와인 애호가들의 절대적 사랑을 받는 프랑스 보르도 샤또 빠비(Chateau Pavei)가 한국 최초로 광주·전남북 지역 와인 애호가들에게 선 보였다.

와인 생산자가 직접 참석해 와인을 홍보하는 '와인 메이커스 디너'(Wine Maker's Dinner)형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샤또 빠비 와인의 오너인 마담 샹탈 페르스(Chantal Perse)씨가 광주를 직접 찾아 만찬을 즐겨 지역 와인 애호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금수장 호텔은 오는 4월 미국의 대표 와이너리인 웬티(Wente) 오너와 함께하는 와인메이커스 디너로 23번째 와인&다인 행사를 준비중이다. 참석 문의 금수장호텔 062-525-2111.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IC카드 전환 '진퇴양난'

900만장 교체 꺼려 금융당국 부심

카드위조 및 복제에 취약한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를 집적회로(IC) 방식 카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보안 강화를 위해 마그네틱 카드를 IC 카드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객 불편을 해결할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는 4900만장으로 이중 IC 카드는 4000만장이고 나머지 900만장은 마그네틱 카드다.

금감원은 마그네틱 카드는 복제가 쉬워 불법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사고가 빈발하자 2004년부터 IC 카드로의 전환을 추진,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사전홍보 부족 등으로 고객들이 현금 거래를 위해 은행을 찾은 뒤에야 마그네틱 카드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IC 카드 교체를 위해 은행 창구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불편 사례가 속출해 해당 조치의 시행을 오는 6월로 유예했다.

일단 3개월가량 시간을 벌었다고는 하나 이 기간 모든 마그네틱 카드를 IC 카드로 교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본인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사전에 유도할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카드 교체 대상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교체를 권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거나 전화를 받고도 은행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상품 가입하면 경품이 와르르~

光銀 5월까지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상품가입고객을 대상으로 'Happy Together이벤트'를 실시한다.

대상상품은 급여우대통장, 가맹점우대통장, 요구성 통장, 신용카드, 거치식·적립식상품, 고정금리 아파트담보대출, 전자금융서비스이며, 동 상품을 가입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상 상품 가입 시 자동 응모 되며 이벤트 경품은 1등 1명 하와이 2인 여행권, 2등 5명 노트북 또는 드럼세탁기 중 고객 선택 3등 40명 여수엑스포 입장권 2매, 행운상 100명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 당첨자는 6월 15일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최재호기자 lion@

■ 새얼굴

"지역 벤처·중소기업 상장 지원"

김광렬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장

"광주·전남북 지역의 금융기관과 투자자 등 이용고객들에 대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공헌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일 취임한 김광렬(51)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장은 "중소기업청, 광주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우량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증권시장에 많이 상장될 수 있도록 모든 실무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신임지원장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지난 1988년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입사해 회계팀장, 권리관리팀장 등을 거쳤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